루한 출연취소는 韓中 비즈니스 긍정 신호?

中CCTV 춘완 출연 나흘 전 전격 취소
"소송중인 SM의 강경 대응 영향" 해석
현지 방송·연예계에 메시지 작용 전망


크리스

루한

크리스와 루한의 중국 CCTV '춘제완후이'(춘완) 출연이 생방송 나흘 전 전격 취소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중국 한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은 14일 "크리스·루한의 출연 코너가 CCTV '춘완'에서 빠진다"고 전했다. CCTV 측은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강경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했다.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15일 "중국 매체의 추측은 대부분 사실"이라며 보도에 힘을 실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이들을 향한 소송 등 SM의 '반격'이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한중합작 연예 비즈니스에 긍정적 신호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규모가 큰 중국 시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왔다. 하지만 CCTV의 이번 조치는 중국 측이 이제 일정한 원칙을 세우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CCTV가 중국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국영방송이라는 점, 시청률 50%에 육박하는 인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조치라는 점에서 현지 방송·연예계에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내에 여전히 중국계 가수들이나 연습생들이 많은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크리스, 루한의 이탈 사태는 국내 제작자들이 중국 출신들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중합작 콘텐츠 제작 관계자는 "크리스와 루한을 '먹튀'로 바라보는 한국적 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런 이들이 중국에서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일 아니겠느냐"면서 향후 '예방'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중국 후난위성TV 관계자도 스포츠동아에 "크리스, 루한의 행동을 두고 중국의 많은 팬들은 '의리 없다'고 생각한다. 높은 인기를 누리다 갑자기 팀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팬들은 바라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SM의 반격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루한에 대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SM은 현재 크리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tvN '삼시세끼', 케이블채널 역대 시청률 2위

13일 방송 12.8%…시청층 넓어 1위 가능성도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어촌편)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매회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어촌편'이 이제 그 절반의 분량을 넘어서면서 그 여세를 몰아 향후 케이블채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어촌편'은 13일 방송에서 12.8%(닐슨코리아)의 수치로 케이블채널 역대 시청률 2위에 올랐다. 1995년 국내 케이블 방송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최고 시청률 수치는 2010년 엠넷 '슈퍼스타K 2'의 마지막 회가 기록한 18.1%이다. 당시 '슈퍼스타K 2'는 시청률을 의식한 지나친 흥미 위주로 내용을 담으며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촌편'의 시청률은 아직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대부터 40~50대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고, 자극적인 설정 하나 없이도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호응도는 역대 최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송 채널인 tvN의 2013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4'(11.9%)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삼시세끼'는 무엇보다 그동안 금요일 밤 10시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해 온 SBS '정글의 법칙 위드 프렌즈'(12.7%)를 포함해 지상파 방송 3사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제쳤다는 점에서 그 위력을 실감케 한다. 특히 18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기간인 20일 5회분을 새롭게 방송하면서 그 인기의 수치와 관련해 또 한 번 화제가 될 전망이다. 평일과는 달리 명절 연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어촌편'은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 등 세 남자의 궁합이 묘하게 어우러지며 빛을 더 하고 있다. '차세프'를 넘어 '요리의 신'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차승원과 생선을 잡기 위해 애쓰는 유해진, 게스트에서 정식 멤버로 합류한 손호준 등 3인3색의 매력이 더해져 재미를 이끌어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손호준

손호준 인기몰이 '예능에서 스크린으로'

첫 주연영화 '쓰리 썸머 나잇' 상반기 개봉예정
미스터리 영화 '조이' 촬영 등 출연제의도 봇물

손호준이 스크린으로도 본격 진출한다.

손호준은 '삼시세끼 어촌편'뿐 아니라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더해 왔다. 그 열기를 올해 상반기 개봉하는 '쓰리 썸머 나잇'(감독 김상진·제작 더램프)과 미스터리 '조이'(감독 박은경, 이동하·제작 영화사 도로시)로 잇는다. 또 다른 영화 출연 제의에 고심 중이다.

손호준은 2013년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94'로 이름을 알린 뒤 2년여 동안 예능프로그램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 게스트로 참여했다 기존 출연자 장근석의 하차로 고정 자리를 굳힌 '삼시세끼'를 비롯해 지난해 '꽃보다 청춘' 등이 그 무대다.

예능 수혜를 톡톡히 입고 스크린에 나서는 손호준의 첫 주연영화는 '쓰리 썸머 나잇'.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는 부산 해운대에서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는 세 남자의 이야기다. 임원희, 김동욱과 함께 '주유소 습격사건' '광복절 특사'의 김상진 감독 연출 아래 연기했다.

현재 '조이' 촬영에도 한창이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뒤 이야기 속에서 성동일과 투톱 주연이다. 그동안 보여준 건강하고 밝은 모습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 사건을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해리 기자

'호산나', 베를린영화제 단편부문 황금곰상

나영길 감독 최고상 수상 영예

나영길(사진) 감독의 '호산나'가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부문 최고 영예인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나영길 감독은 15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베를린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호산나'로 단편부문 황금곰상을 받은 뒤 "신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단편영화가 베를린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기는 2011년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에 이어 4년 만이다. 또 지난해 문병곤 감독의 '세이프(Safe)'가 6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단편부문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은 성과다.

'호산나'는 나영길 감독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졸업 작품. 성경 시편의 호산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다. 상처를 딛고 새 삶을 얻은 이들이 반복되는 삶에 고통 받으며 자신을 살린 소년을 저주하지만 소년은 묵묵히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다.


15일(한국시간) 나영길 감독이 베를린영화제 단편부문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들고 있다. 베를린(독일) | AP·뉴시스

한편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는 임권택 감독의 '화장'이 비평가 주간에 초청됐고 윤제균 감독이 연출한 '국제시장'이 파노라마 부문에서 상영됐다. '괴물' '마더'의 봉준호 감독은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장편부문 황금곰상은 이란의 자파르 피나히 감독이 연출한 '택시'가 수상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기내 소란' 바비킴 귀국…소환조사 예정

16일 이후…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기내 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사진)이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6일 이후 바비킴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바비킴은 1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은 뒤 37일 만인 13일 오후 귀국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이 만취상태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폭언을 했고, 여승무원에게 3차례 신체접촉 및 언어희롱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바비킴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여승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비킴은 미국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가 국내에서도 같은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사건 당시 다른 승객 등 목격자가 많았다는 점과, 사건 직후 소란 행위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그가 사과했다는 점에 비춰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보안법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찰이 미국시민권자인 바비킴에 대해 조사 이후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아 눈길을 모은다. 사실상 '무혐의'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기내 범죄인의 재판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등록국가에 부여'하는 도쿄협약을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김원겸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병헌 "50억 협박 다희·이씨 처벌 원치 않는다"



톱스타 이병헌(사진)이 자신을 협박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병헌은 13일 '50억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출신 이모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벌 불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희와 이씨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월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이병헌 측은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두 사람이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적 시비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희와 이씨가 보석 허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이병헌과 아내 이민정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에서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은 "일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차승원, '삼시세끼' 현지 방송 앞두고 일본 팬미팅

톱스타 차승원이 일본에서도 '대세'임을 입증했다. 차승원이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일본에서 팬들과 만났다. 이날 도쿄 롯본기 블루시어터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일본 팬 미팅 2년 6개월 만인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른 차승원은 최근 현지 개봉한 영화 '하이힐'과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등 최근작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특히 최근 가장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의 4월 현지 방송을 앞두고 방송에서 선보인 요리와 비하인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룹 JYJ의 박유천도 이날 중국 청두 중국전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현지 팬들과 대화를 나눈 박유천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며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박유천은 3월1일 중국 상하이에서 팬미팅을 이어간다.

미쓰에이 수지,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손배소송 기각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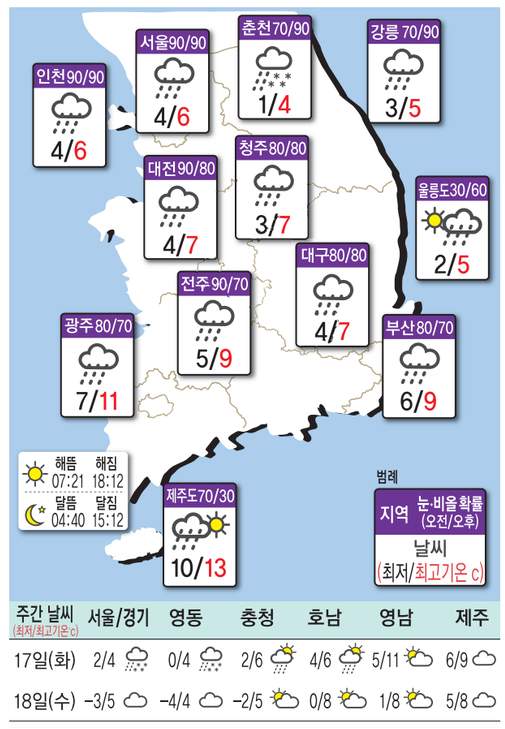
그룹 미쓰에이의 수지(사진)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이름의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이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초상권, 성명권 침해만으로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장미여관 육중완 "5년째 동갑내기 여친과 연애중"

밴드 장미여관의 멤버 육중완이 연애 중임을 고백해 눈길을 모았다. 육중완은 15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 TV연예통신'에 출연해 "5년째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에 관한 의지도 드러낸 그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2월 16일 월요일 (음력 12월 28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7일(화)	2/4	0/4	2/6	4/6	5/11	6/9
18일(수)	-3/5	-4/4	-2/5	0/8	1/8	5/8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맹호	편집부	02 2020 1032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1부	02 2020 1044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2부	02 2020 104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